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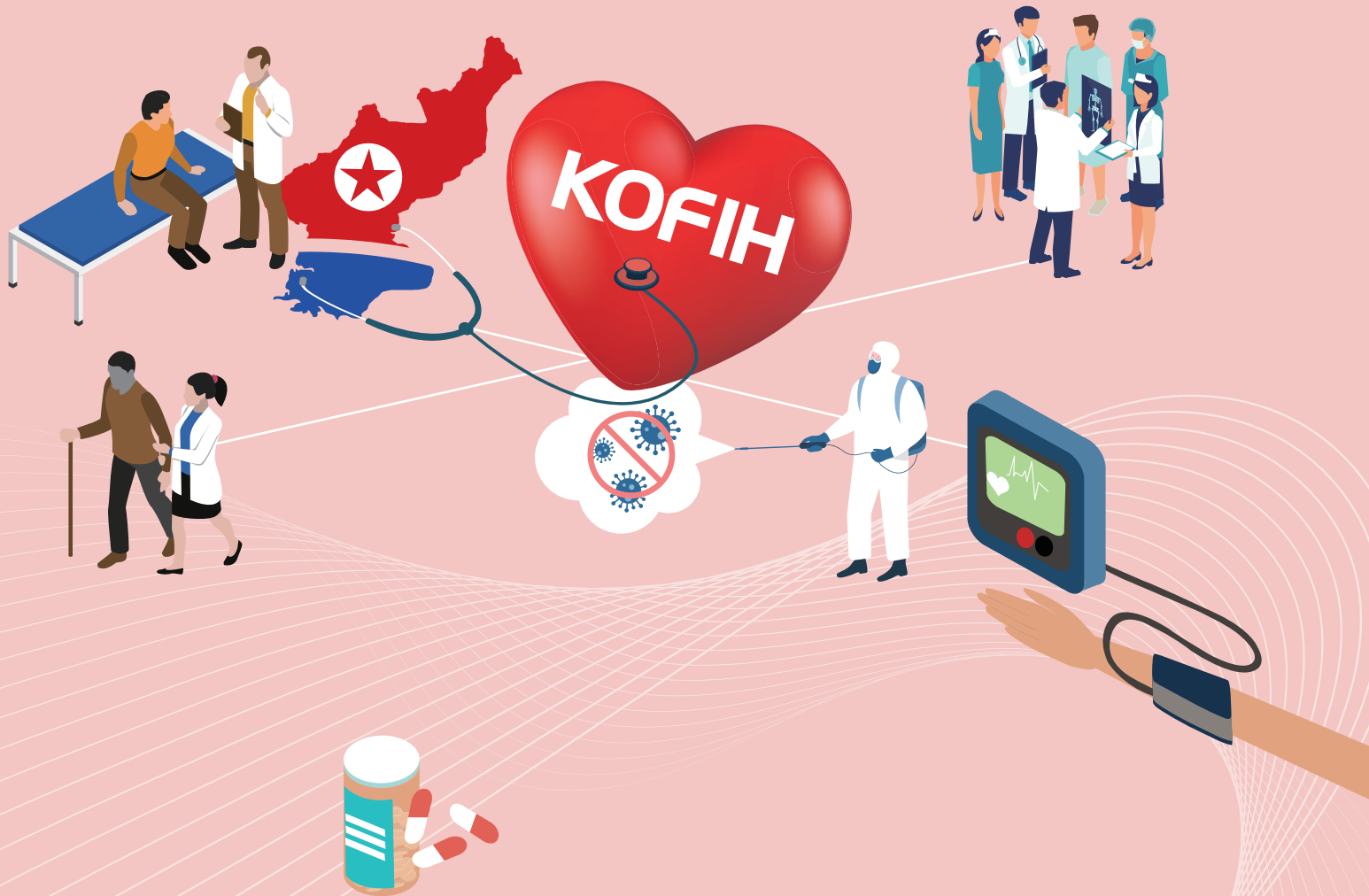
인도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KOFIH의 노력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인류애를 실현하는 사업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전대미문의 고통에 시달리는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K-방역, K-보건의 위상도 결국 '연대'와 '협력'이라는 인도주의 정신에서 비롯됐습니다. KOFIH는 앞으로도 인도주의 지원사업을 통해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탬 것입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Letter

WINTER 2020
Vol.55



Contents

WINTER 2020 Vol.55
www.kofih.org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Letter

발행일 2020년 12월 10일

정기간행물신고번호 서울 중, 바00157

재단발행자등록번호 정가-6-2020-1

발행인 추무진

편집인 최원일

발행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주소 0453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재능교육빌딩 6, 7층

전화 02-3396-9700

기획·편집 KOFIH 경영기획부 02-3396-9830

취재·디자인·제작 코리아프린테크 02-2264-3325

발행에 도움을 주신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간으로 발행되는
(KOFIH Letter)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9 772308 48007
ISSN 2508-3481



08



개발도상국, 북한, 재외동포 및 외국
인 근로자 등에게 높은 전문성이 요구
되는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를 통하여 국제협력 증진
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의거 2006년
에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보건복
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2020 KOFIH PROJECT MAP

KOFIH 주요 사업 현황 지도 04

KOFIH Letter

**2021년 새해에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06

기획특집 카드뉴스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KOFIH의 노력과 실천 08



Explore the World / 세계 속의 KOFIH



10

포토 에세이

사진으로 보는 KOFIH의 인도주의 지원사업 현장

10



16

글로벌 리포트

국경 넘어 인류애 실현하는 KOFIH의 인도주의 사업

12

글로벌 특파원

우즈베키스탄 아리랑요양원 코로나19 대응 현장

16

The Way Forward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서 KOFIH의 대북사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

18

Inside KOFIH / KOFIH 속으로



20

KOFIH 인사이트

가난하고 소외된 인류의 주치의, 이종욱 박사를 만나다

20

열정 36.5°C 제2회 이종욱 기념 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할 것인가

22



26

현장 다이어리

KOFIH 라오스·탄자니아 사무소 새로운 시작, 이로운 세상을 열다

26

KOFIH NEWS

KOFIH의 주요 동향과 이슈

28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인류애를 실현하는 사업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전대미문의 고통에 시달리는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K-방역, K-보건의 위상도 결국 '연대'와 '협력'이라는 인도주의 정신에서 비롯됐습니다. KOFIH는 앞으로도 인도주의 지원사업을 통해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낼 것입니다.

Culture for You / KOFIH 문화산책



32

지구촌을 밝히는 '한국인 슈바이처'

미얀마 베데스다 클리닉 장철호 원장, 기꺼이 고통에 동참하다

32

21세기 신종 감염병 바로 알기

코로나19에 독감, 노로바이러스, RSV까지... 치료제 없는 겨울철 감염병도 예방법 잘 지키면 OK!

34



34

독자의 소리

함께 만드는 <KOFIH Letter>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36



모자보건 지역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결핵 등
감염병 관리사업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구축사업



병원 운영
컨설팅 사업



민관 협력사업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



건강보험 정책
컨설팅 사업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사업



외국인 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사업



의료자원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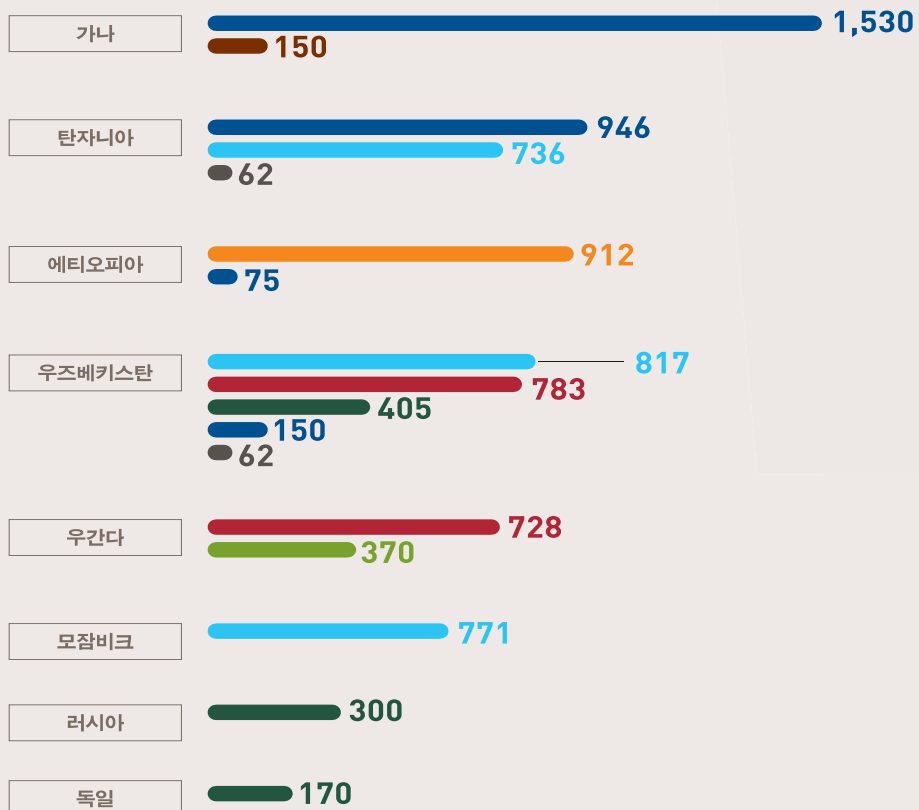
2020 KOFIH PROJECT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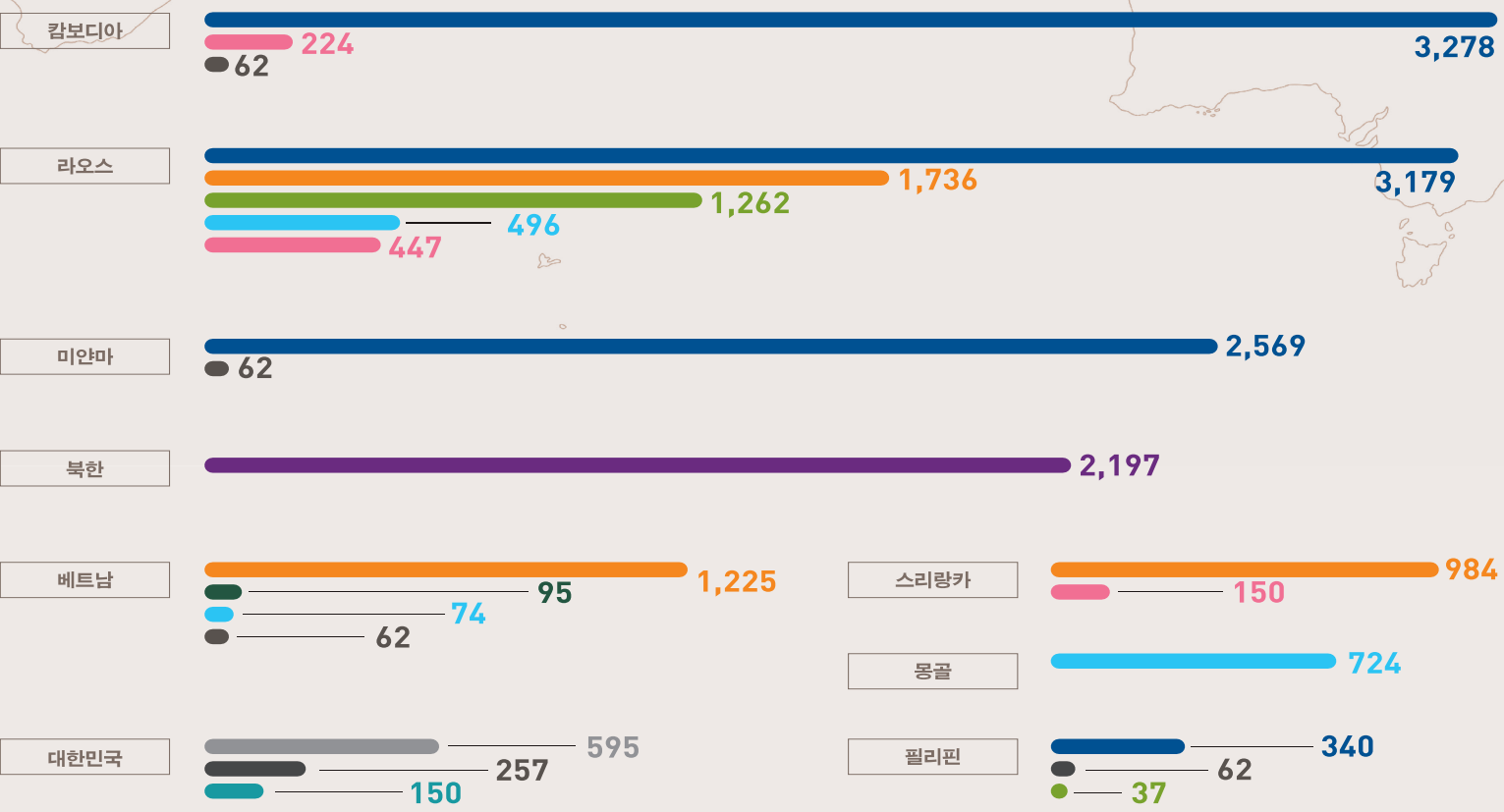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6, TH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KOFIH) HAS
IMPLEMENTED VARIOUS
PROJECTS DEDICATED
TO THE BETTERMENT OF
HEALTH AND MEDICAL
SYSTEMS AND BOLSTER
CAPACITIES FOR THE PEOPLE
IN PARTNER COUNTRIES.



Ghana (가나)

(단위 : 백만 원)





이종욱 기념 전시실 Dr LEE JONG WOOK MEMORIAL HALL





2021년 새해에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KOFIH Letter> 독자 여러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추무진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12월입니다. 돌이켜보면 올해 최대의 화두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예외적인 나라가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통해, 이제 코로나19는 국가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 공동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최대의 위기가 됐습니다.

저는 지난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산하의 우즈베키스탄 아리랑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옛 소련 시절 강제 이주된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시설에서 지난 10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지를 찾았습니다. 현지 도착 후 국립중앙의료원 의료팀 및 현지 의료진과 함께 환자 상태, 치료 및 시설 상황을 상세히 점검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차례로 면담하고, 의료진, 치료약제, 전원병원 확보 등을 지원받아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러시아어로 번역된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위로 서한을 입소 어르신들께 개별적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체계가 잘 작동한 결과 현재 요양원의 어르신들은 빠르게 안정돼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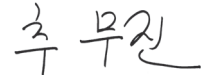
이들을 위한 이동검진 지원도 이뤄졌습니다. 그간 코로나로 인해 지원이 많이 위축됐고,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기관 방문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년과 달리 KOFIH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다수의 기관이 참여한 진료를 통해 60여 명의 수혜자들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를 받았고 약제 처방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진료를 받은 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는 평일에 일을 해야 해서 병원에 갈 수 없다. 병원 문도 빨리 닫아 약만 먹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주말 진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했습니다.

이처럼 재단은 개발도상국 개발협력(ODA)사업 외에도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과 해외긴급구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마지막이 될 <KOFIH Letter> 겨울호에서는 ‘인도주의 지원사업’을 특집으로 구성해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 지구촌 상생 및 번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KOFIH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해도 알차고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KOFIH Letter>에서는 모자보건 및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특집호(봄호)를 시작으로, 감염병사업(여름호), 의료시설 융합사업(가을호) 등 재단의 협력사업을 다채롭게 살펴봤습니다. 소식지에 담긴 이야기들이 현장의 상황과 정보를 독자 분들께 생생하게 전달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지구촌 이웃들의 건강한 삶이 보장될 때, 그리고 이를 위한 진정한 화합과 연대가 있을 때 평화와 번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도 재단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KOFIH의 노력과 실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도주의의 실현은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질병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이뤄지는 최소한의 인권 보장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건강권마저 위협받는, 보건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북한 주민이나 재외동포, 국내 외국인 근로자나 해외 재난지역 등이 그렇습니다. 이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인도주의 지원사업을 통해 선진 의료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호보다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KOFIH는 오늘도 지구촌의 인도주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이동검진지원.

01

인도주의란



인도주의란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임을 강조하며 인류의 공존을 꾀하고 복지를 실현하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국적이나 성별, 계층을 초월해 모두가 함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인도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상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휴머니즘과 달리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도주의는 세상을 실제로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02

인도주의 지원사업의 현황은



KOFIH의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민족적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 우리 정부는 해외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를 파견해 긴급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03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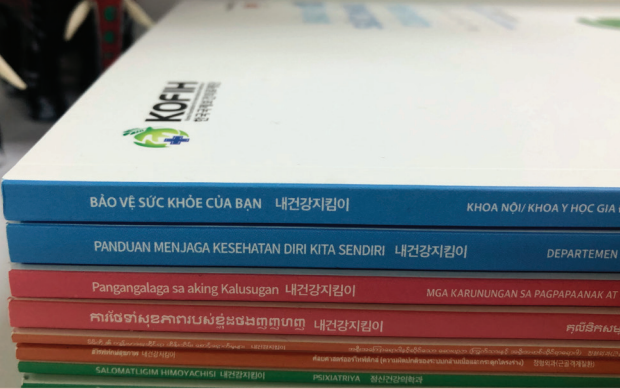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건강한 한반도 구현을 위해 북한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OFIH는 남북한 주민 모두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 민관협력 포럼을 개최하는 등 상호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 개발 지원을 연구하며 한반도 건강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4

인도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KOFIH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인류애를 실현하는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전대미문의 고통에 시달리는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K-방역, K-보건의 위상도 결국 ‘연대’와 ‘협력’이라는 인도주의 정신에서 비롯됐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 채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에 KOFIH는 앞으로도 인도주의 지원사업을 통해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탬 것입니다.



• REC



지금보다 더 건강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의지는 재외동포와 국내 외국인 근로자를 아우르고 군사분계선 저편의 북한까지 뻗고 있습니다. 국적이냐 이념보다 인류애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언어, 다른 피부색, 다른 생각으로 인해 생겼던 마음의 벽은 함께한 시간 동안 금세 허물어집니다. 서로에 대한 차가운 편견도 마주치는 눈빛과 미소에 시나브로 녹아버립니다. 누군가를 향한 도움의 손길은 이렇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희망의 밑거름이 됩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KOFIH의 실천은 오늘도 작은 기적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3...2...1...1...2...3



북한 보건의료 백서 2019년 개정판 발간 기념 간담회

| 일시 | 2020. 7. 16.(목) 10-13:0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8층 대강당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의료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아리랑요양원







올해 9월 열린 제8기 북한 보건의로 아카데미.

건강한 지구촌을 위한 대담한 발걸음

국경 넘어 인류에 실현하는 KOFIH의 인도주의 사업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사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추구하는 가치인 ‘Health for All(모든 인류에게 건강을)’의 다른 표현이다. ‘모든 인류’라는 대상 앞에서 모든 경계는 무의미해진다. 이를테면 북한 주민이나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긴급구호가 필요한 해외 재난지역이 그렇다. 모두가 건강한 지구촌을 꿈꾸는 KOFIH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글_ 송준호

남북관계의 변함없는 초석, 북한 보건의로 협력사업

KOFIH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건강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 대북 보건의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1996년 앰볼런스 지원을 필두로, 북한 보건의로인 교육사업, 제약공장 기초의약품 생산 지원사업, 나선지역 결핵 등 감염성 질환관리 지원사업 등 북한 보건의로 발전과 체계 강화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해왔다.

열악한 보건의로 환경에서 특히 피해가 큰 것은 영유아와 산모,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층이다. 2017년 유엔아동기금(UNICEF)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1000명 중 15명꼴로 1000명 중 3.3명인 한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KOFIH는 지원의 시급성과 장기적 기대효과를 고려해 영유아와 산모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 2년간 북한 어린이 B형간염 예방접종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KOFIH는 북한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의 근거 마련, 정보 공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북한 보건의로 개발 지원 과제와 추진 전략 세미나 개최, 남북 보건의로 통합 준비를 위한 한·독 심포지엄 등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와 협력해 장기적인 협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특히 2013년 발간된 보건의료 백서는 지난 20년간 진행된 대북 보건의료사업을 정리함으로써 북한 보건의료 지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첫 발간 후 6년 만에 개정이 이뤄져 그동안의 남북 협력과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판은 북한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 지표를 다루는 1부, 국내외 대북 보건의료 지원 경향을 분석하는 2부, 북한 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하는 3부로 구성돼 1990년부터 2017년까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KOFIH의 북한 보건의료 협력사업은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3년부터 운영 중인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가 그것이다. 이 사업은 북한 보건의료 지원 분야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에는 수강생의 수요와 필요를 반영해 아카데미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공동 개최하는 등 북한 보건의료 지원 내용과 함께 대북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OFIH는 아카데미를 통해 기본적인 북한 보건의료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남북한 감염병 대응 협력방안'이나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 경험'과 같은 최근의 이슈를 반영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의 관심과 정보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오프라인 강좌와 온라인 강좌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경 너머 우리 민족 지킨다,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사업

2019년 외교부 기준 약 750만 명으로 집계되는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깝고도 먼 존재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국적마저 다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 정의에서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아가 재외동포의 정의는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니고 외국에서 거주하는 이를 포함한다. 이처럼 우리와 동질성을 지닌 이들이지만 지리적·물리적 거리 때문에 기본적인 보건 의료의 혜택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러시아 사할린 현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에 따라 KOFIH는 이들의 건강 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민족적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취지에서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독거노인 아리랑요양원 운영, 독일 파독 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러시아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의료 지원사업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넘게 진행 중이다. 가장 오래 전개되고 있는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아리랑요양원 운영이다. 고려인 동포 1세대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2010년 개원해 운영 중인 아리랑요양원에서는 입소 노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의료 및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 체조와 산책 등을 통한 체력 증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말벗 서비스 등을 병행하며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함께 관리한다.

또한 파독 근로자 출신 동포 가정을 방문해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할린에서는 현지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잔류 1세대 동포를 국내에 초청해 진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2016년에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85명의 동포들이 위암·대장암·전립선암·백내장 수술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주치의를 배정하고 통역과 간병인을 배치하는 등 편안한 환경 조성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 사업도 추진했다. 베트남 귀환여성 자녀에 대한 의료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 자녀가 현지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를 대상으로 건강 검진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베트남 귀환여성 등 자녀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 돌봄 건강정보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KOFIH는 현장 중심

사업 수행을 위해 베트남 '코쿤 깐터(KOCUN-Cantho,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깐터 사무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수행하고 있다.

올해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상황을 개선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려인 독거노인 요양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체계를 구축했으며, 독일에서는 파독 근로자방문 보건 서비스 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오리엔테이션 시 관련 교육을 추가했다. 또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은 현지 프로그램 운영 지역과 수혜자를 확대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는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건강 검진 대상자 범위를 지난해의 '한국-베트남 자녀'에서 올해 '귀환여성 등 자녀의 보호자'로 확대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KOFIH는 현재 키르기스스탄 등 재외동포 거주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펼치고 있어 신규 사업의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누구나 진료받을 권리,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의료 지원사업

보건의료의 사각지대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다. 이들은 몸이 아파도 평일 근무시간에는 병원 방문이 어려워 약으로만 버텨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야근이 많은 제조업의 업무 특성상 진료 시간에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회사에서 몸이 아픈 직원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외출 허락을 구하려는 시도도 못한다.

이런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KOFIH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우선 이동이 어려운 이들의 여건을 반영해 2007년부터 이동진료 차량을 운영하며 무료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의료기기와 의약품, 의료 소모품 등의 지원을 통해 진료소로서의 기능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더 다양한 진료 가능성이 됐다.

전국 각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최대한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협력단체 및 기관과 연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KOFIH는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 단체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해 검토 후 이동검진 차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동검진 차량 신청단체 지원은 무료 진료 기관·단체 지원사업에서 KOFIH가 목표로 하는 총 130회 중 110회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사업이다. 이는 지역을 불문하고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각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KOFIH는 기본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청한 진료단체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을 지키고 있다.

보다 나은 진료 환경을 위해 이동검진 차량의 유지 보수도 중요하다. 특히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하는데, 올해는 안과·이비인후과 이동검진 차량의 노후에 따라 신규 제작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안과·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KOFIH는 다국어로 된 건강 자료를 제작, 배포해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가 기본적인 건강정보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또 파상풍이나 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예방접종도 지원하는 등 기본적인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때문에 의료기관 방문도 쉽지 않은 이중의 어려움까지 겪었다. 더불어 그동안 추진돼온 의료봉사도 주춤한 경향이 있었다. KOFIH는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위축된 의료봉사를 확장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재난은 전 세계가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체감시켰다. 국제협력과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말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환기한 것이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우리 정부는 해외에서 지



국내 외국인 근로자 의료 지원사업.

진이나 태풍, 사이클론,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를 파견해 긴급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 KOFIH도 구호대의 일원으로 의료팀을 구성해 파견하고 있다. 실제 재난 발생 상황에 대비해 KOFIH는 평소에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그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해 의료팀의 역량 강화를 수행하고 있다.

인류애라는 최상위 가치, 해외재난 긴급구호 지원사업

재난 상황이라는 것이 총체적 난국임을 감안하면, 지원하는 국가에서도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래서 현재 KDRT도 보건복지부나 KOFIH뿐만 아니라 유관부서가 공조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가령 외교부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업무 총괄과 조정을 맡고, 보건복지부가 피해국에 파견할 의료팀의 선발과 구성, 인력풀 총괄 관리를 맡는 식이다. 해외재난 발생 시 중앙119구조본부가 구조팀을 파견해 현장 구조 활동을 수행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선발대를 파견해 의약품이나 장비 같은 재난 물자를 관리한다. KOFIH는 의료팀의 민간 인력풀을 관리하면서 2, 3진을 파견하는 역할을 맡는다. 비상시에는 이 모든 부서가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체계 안에서 KOFIH는 이제까지 국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마다 현장에 의약품을 지원하거나 의료팀을 파견하며 인도주의를 실천해왔다. 2008년에는 사이클론의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 2010년과 2015년에는 지진 피해를 입은 아이티와 네팔에 의료팀을 파견해 고통에 신음하는 현지인들의 구조와 치료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현장 경험이 쌓이면서 KOFIH의 대처 노하우도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진행 중인 해외재난 긴급구호 지원사업은 의료팀의 교육 훈련, 인력풀 관리와 운영,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으로 더욱 체계화됐다. 특히 해외재난 발생 시 의료활동에 대한 국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각국 의료팀은 WHO가 마련한 응급의료팀(EMT) 기준을 준수해 의료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생겼다. KOFIH는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훈련을 실시하며 의료팀의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우즈베키스탄 아리랑요양원 코로나19 대응 현장

신속한 K-방역 조치로 다시 찾은 일상

고려인 강제이주 1세대 동포와 여러 사정으로 가족의 부양이 어려운 독거노인 동포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2010년 개원해 운영 중인 우즈베키스탄 아리랑요양원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했다. 입소자들은 고령의 어르신이라서 더욱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신속한 대처로 요양원은 며칠 만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글_ 송준호



아리랑요양원 내 어르신들에 대한 영부인 손편지 전달.

비상회의부터 파견까지... 긴박했던 3일

지난 10월 6일 KOFIH는 비상대책반 구성으로 분주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아리랑요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2006년 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을 맞아 건립된 아리랑요양원은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순방 때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방문한 인연이 있는 곳이다. 확진 상황은 심각했다. 10월 5일 시행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법(RT-PCR) 검사에서 입소 어르신 34명 중 25명에게서 양성 결과가 나왔고, 의심(potential) 4명, 음성 5명, 그리고 직원 24명 중 양성 11명, 의심 5명, 음성 8명으로 판명된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는 소식을 접한 후 전문 의료진 급파와 치료용 의약품 지원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10월 8일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외교부, 국립중앙의료원 및 KOFIH 측이 참석해 의료진 파견 사항을 논의했다. 그리고 다음날 추무진 KOFIH 이사장과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 등 3인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우즈베키스탄 현지로 파견됐다. 의료진은 우즈베키스탄 방문 시 요양원 입소자들과 교분을 나눴던 김정숙 여사가 직접 쓴 손편지와 고막채운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의료용품들을 전달하는 임무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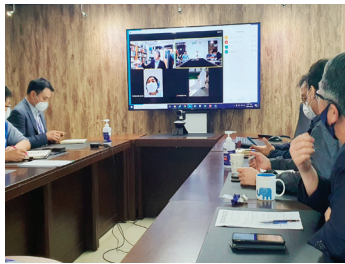
이들은 도착 첫날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치료 방침과 경험 등을 토대로 요양원과 현지 의료 상황에 맞는 치료 계획과 코로나19 전문병원으로의 전원 기준 등을 현지 의사와 협의해 결정했다. 우선 요양원을 확진자 및 미감염자 구역으로 나누고, 개별 숙소로 흩어진 증상이 심한 어르신들을 모아서 돌보기 위한 집중관찰실을 확보했다. 또 이동 동선을 확정하고, 현지 의료진에 감염관리 방침과 방호복 착용 교육 등을 시행했다.

무엇보다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가장 시급했던 의료진 지원과 렘데시비르 등 의약품에 대한 공급, 전원이 필요한 어르신 발생 시 코로나19 전문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청해 지원을 약속받았다.

물론 이렇게 국내 의료진이 투입되기 전까지 현지에서도 상황 대처에 구슬땀을 흘렸다. 10월 4일, 일부 입소자와 직원에게서 발열 증상이 발견된 후 아리랑요양원의 김나영 원장은 KOFIH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의 유육진 소장에게 연락을 취해 신속진단키트로 검사를 진행했다. 다음날에는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PCR 검사도 추가 시행했다. 그 결과 집단감염을 확인한 김 원장은 입소자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직원 임시 사무실을 만들고 방역에 방해가 되는 양탄자와 침대 등 비품을 정리해 의료에 필요한 처치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또 KOFIH 본부와 주(駐)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과 상황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이처럼 현지 인력과 파견 인력의 공조를 통해 최악으로 치닫던 확진 기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이번 요양원 확진 사태에는 KOFIH의 전 직원이 비상체제로 임하며 현지 확진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요양원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았다. 의료팀에 이은 우즈베키스탄 지원 출장도 잇따랐다. 최성정 감사실장과 강진호 민관협력사업부장은 10월 12일 입국해 3주간 현지에 머물며 공백 상태에 빠진 요양원의 빈틈을 메웠다.

김나영 아리랑요양원 원장의 확진으로 요양원 운영 지원에 나섰던 최성정 실장은 입소 어르신의 의료 지원과 직원 근무관리를 병행하



아리랑요양원을 찾은 한국 의료진. 현지 상황 공유 및 자문 영상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아리랑요양원의 정상화 모습.(왼쪽부터)

의료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격리해제 상태가 됐

며 바쁜 일정을 보냈다. 그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출장으로 현장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컸다”고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현지 직원들과 한마음으로 협력해 빠른 시간 내 코로나를 극복하고 누워계시던 어르신들이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계속되는 도움의 손길, 정상화를 향한 노력들

의료물품 구매 지원과 코로나19 긴급자금 회계 지원을 맡은 강진호 부장 역시 “이런 사업들이 국제보건의료를 하는 KOFIH의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 아리랑요양원에 대한 지원과 큰 관심이 지속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10월 30일 현재 아리랑요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내 및 현지 전문

다. 20여 일간의 힘겨운 싸움은 국내외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빠르게 정리됐다. 하지만 KOFIH는 여러 가지 상황 정리와 점검을 위해 또 다시 직원을 파견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11월 6일부터 18일간 현장을 방문한 공인재 한민족협력사업부장은 요양원 격리해제에 관한 공식문건 보고와 아리랑요양원의 이미지 인식개선, 재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현지 직원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새삼 느꼈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 두 달에 걸친 이번 아리랑요양원에 대한 파견과 지원은 그 자체로 인도주의적 실천의 모범으로 남을 만한 일정이었다. 국적과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 힘을 보탠 이들의 땀방울은 그 어떤 재화의 가치보다 귀하게 느껴진다. **K**



인터뷰 김나영 아리랑요양원 원장

“힘이 돼주신 모든 분께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 현재 요양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0월 말 요양원 전체가 격리해제됨에 따라 11월 초부터 일상 복귀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입소 어르신들은 코로나19 확진 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직원 역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명상, 노래교실, 물리치료실 등 다양한 요양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는 특히 고령자에게 위험하다고 알려졌는데,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입소 어르신 평균연령은 86세로 많은 분들이 고혈압, 치매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확진 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구분해 관리했고 현재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제거돼

어르신들과 직원 모두 떨어진 기력을 회복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 여사의 위로 편지를 받으신 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요.

“어르신들은 한국에서 우리를 많이 생각해줘 감사하다고 인사하시고, 할머니 한 분이 다른 분께 편지를 읽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전씨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우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뀐 상황에 힘드셨을 입소 어르신들에게 한국에서 온 편지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 향후 요양원의 환경 개선이나 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 교육도 필요할 듯합니다.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요양원 직원 및 의료진은 감염병 대응 방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아리랑요양원 예방안전 표준근무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를 마련해 직원 교육과 1일 3회 지침 준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본인도 감염될 정도로 당사자이자 책임자로서 고생이 많았는데 소감을 남긴다면.

“힘든 일이 닦쳤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서 요양원과 어르신들의 평온한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찾은 희망과 함께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돼주신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기관,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및 교민단체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을 빌어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서 KOFIH의 대북사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



글_ 김신곤 고려대 의대 내과 교수,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

그간 남북관계는 정치, 군사적 이슈, 경제적 협력 전망 등을 중심으로 움직여왔다. 보건의료도 다뤄지긴 했으나 핵심 의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국제적 감염병 위기 상황은 22만km라는 작은 땅덩어리를 공유하고 있는 남북한 간 보건의료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제는 '건강안보'라는 말이 익숙한 표현이 됐다. 또한 비정치적 영역인 보건의료의 창의적 협력이야말로 꼭 막힌 남북한 정세를 돌파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대북사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자.

전략적 로드맵에 기반을 둔 단기 방향 수립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거시적 맥락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위기 국면에서 보건의료협력이 선도적 역할을 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타 영역과의 협력과 연계를 고려한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의 관점이 견지되어야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다.

KOFIH는 대북사업과 관련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가?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 당장 무엇을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벌여나갈 것인가? 교류협력이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성과가 축적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2021년의 단기적 추진 계획도 중장기적 전망과 로드맵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당장 내년도에는 전 세계의 보건학 위기를 남북 보건의로 개발협력의 변곡점으로 만들 계획을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 방역도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남북한 보건의로인들이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동아시아 전문가회의 같은 방식부터 지원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을 넘어선 상생하는 개발협력

북한은 긴급구호적인 일회성 인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부터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추진으로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을 2005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소규모의 직접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부터, 대규모의 체계적 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핵강국으로서의 자신들의 국가 위상을 의식하며, 돈과 물자에서부터 인력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더 중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시대적 요청과 북한의 전략 계획 그리고 실제적인 미충족 욕구(Unmet Need)에 주목하며, 남북한 서로의 장점으로 협력하며 상생의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방호물품 생산기지로 전환시켜 남북한 공동이익 창출과 세계적 위기 극복에 기여하자는 것도 한 방안이다. K-방역의 성공적 경험과 북한의 고전적 방역의 장단점을 보완해 북한의 봉쇄를 푸는 데도 기여하게 하고, 한반도형 방역모델로 개발해 개발도상국에 수출할 수도 있다.

또한 보건의로 인도적 지원의 경우도 완제품의 제공보다는 원료나 기술을 공급하여 북한에서 직접 생산하며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이익과 사회공헌을 병행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2020년 5월 열린 '북한 보건의로-개발협력 아카데미'.

보건의로 전문성에 기반을 둔 거버넌스 선도

대북 보건의로 활동에는 매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필요한 많은 관계부처들이 있고, 관련 공공기관들도 있으며, 다양한 경험과 자원, 열정을 가진 국내 비정부기구(NGO)들도 있다. 대학 등의 교육기관, 대형병원 등의 의료기관, 그리고 종교기관들도 있다. 또한 17개 지방자치단체들도 있고 많은 국내 기업들도 있다. 많은 기관들이 고유의 장점과 경험 그리고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중 보건의로 개발협력에 특화된 대표적인 기관은 KOFIH다.

따라서 KOFIH가 남북 보건의로 개발협력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기관들을 네트워킹하여 이들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018년에 시작한 '남북 보건복지 민간협력 포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칭 '한반도 보건의로 개발협력위원회' 설립을 선도하고, 인도적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추진으로 남북협력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북한은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방역 조치로 취한 북한의 자발적 국경 폐쇄는 유엔 제재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북한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홍수 피해까지 덮치면서 보건의로 영역에도 삼중고의 충격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국내 민간단체의 지원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열악한 보건의로 인프라와 환경, 영양의 부족 등은 언제든지 북한의 건강안보를 폭발시키는 심각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 북녘 땅에서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당장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하자. 코로나19를 계기로 돌파구를 만들고 호혜적 차원에서 창의적 방식으로 생명의 끈을 연결하자. 코로나19가 초래한 문명사의 역진 속에서 한반도의 전진을 이뤄내자. 그리고 그 중심에 KOFIH가 서자. **K**



이종욱 기념 전시실.

가난하고 소외된 인류의 주치의, 이종욱 박사를 만나다

이종욱 기념 전시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펼쳐지면서 더욱 그리워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병든
이들을 찾아다니며 세상의
낮은 곳에서 먼저 손을 내밀던
고(故) 이종욱 박사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서
한국인 최초 국제기구 수장을 역임한
이종욱 박사. 기념 전시실 관람을 통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재능교육빌딩 8층
문의 : 02-3396-9700

글_ 김보미

“현재의 상황 때문에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세운 고
귀한 목표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행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움으로써, 우리는 천연두를 퇴치했으며 곧 소아마비도
퇴치할 것입니다. 이상적인 목표야말로 세계 보건계가 더욱 위대
한 성과를 달성하게 만드는 동력인 것입니다”

> 2003년 1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 이사회 프레젠테이션 중 이종욱 박사의 연설

이 메시지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와닿는데요.
이종욱 박사는 2003년 WHO 사무총장 출마 연설문에서 수백만
명이 나올 수 있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거나 죽어가고 있는 안타
까운 현실을 짚었습니다. 동시에 건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높
은 이상과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뛰어난 리더의 면모를 과시했습
니다.



이종욱 박사의 일대기(1945~2006년).

그의 남다른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 자리에 올랐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거쳐 미국 하와이대 보건대학

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은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성 나자로 마을'로 들어간 사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던 그는 36세가 되던 해에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 사모아로 건너가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싶어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 한센병 자문관으로 국제기구에서 활동을 시작했던 이종욱 박사. 20여 년간 요직을 거치며 뛰어난 성과를 남겼던 그는 에이즈와 소아마비, 인플루엔자 등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지구촌 사람들을 지켜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병든 이들을 살핀 그의 발자취

생전에 감염병 팬데믹 대비의 중요성을 역설한 그는 '국제보건협약(신종 감염병 발생 국가는 WHO에 즉시 의무보고)'을 제안하고, 전략보건운영센터(SHOC, Strategic Health Operation Center)를 설립해 각국의 감염병 즉각 대응을 위한 비상 상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SHOC는 2003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5년 조류인플루엔자(AI), 2009년 신종플루,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 세계적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중추적인 컨트롤타워가 됐으며, 현재 코로나 19 사태 또한 SHOC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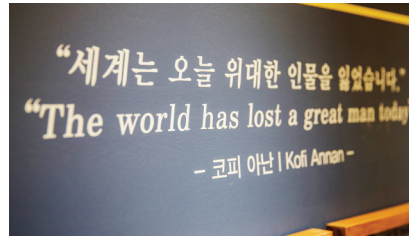
감염병에 대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6년 5월 작고 후 SHOC의 공식 명칭은 이종욱 박사의 이름을 딴 '이종욱 전략보건운영센터(JW LEE SHOC)'가 됐습니다. 질병 확산 범위에 따라 발령하는 '대유행병 6



지구촌 곳곳의 병든 이들을 살핀 이종욱 박사의 발자취.

단계 경보 체제' 제정 또한 이종욱 박사의 사무총장 재임 중의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무총장이 된 후 3년 동안 60개국을 순방하는 고된 여정 속에서 도 늘 유쾌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민들과 어울려 춤추고 아이들과도



코피 아난(제7대 유엔 사무총장, 2001년 노벨평화상 수상)의 추도 메시지.

잘 어울리는 그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작은 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그가 2006년 5월 22일 WHO 총회 준비를 하던 중 과로로 쓰러져 서거하자 전 세계

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를 잃었다"며 애도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병든 이들을 찾아다니며 세상의 낮은 곳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던 이종욱 박사. '옳은 방법으로 옳은 일을 하라'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 지금 이 시각에도 인류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종욱 박사를 더욱 뵈고 싶다면!

1. 삶의 궤적을 따라서 <이종욱 평전>(WHO 사무총장, 백신의 황제) '아시아의 슈바이처', '위대한 작은 거인'. 수많은 수식어로도 설명이 부족
한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이 선택하고 신이 시기한 사람'이라는 서평을 남겼는데요. 평전을 읽은 독자분들의 서평이 궁금해집니다. 조금 확신하자면, 인간 이종욱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우리의 막힘에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종욱 평전>, 데스몬드 에버리, 나무와숲, 2020년 6월(개정판)

2. 영원한 안식의 길로 '국립대전현충원 이종욱 묘소'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세계 인류를 위해 기여했던 이종욱 사무총장을 기념하기 위해 WHO 사무총장 취임 계약서, 의사 면허증, 국민훈장, 여권 등의 유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
문의 : 042-718-7114

3. 이종욱 박사의 후예들을 위한 '한국잡월드(JOB WORLD)'

한국잡월드는 꿈을 실현한 직업인 20명을 선정해 소개합니다. 이곳에는 이종욱 박사의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여권이 홀로그램으로 전시돼 있으며, '사회공헌가'란 직업에 대한 설명과 이 박사의 생생한 영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박사와 같이 국제적 리더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문의 : 1644-1333



지난 11월 19일 개최된 '제2회 이종욱 기념 포럼'.

‘제2회 이종욱 기념 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할 것인가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시대, 연대와 협력은 이제 모든 국가의 당면과제가 됐다. 문제는 국제 정세에서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있는 각국이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다. 지난 11월 19일, 이 만만치 않은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제2회 이종욱 기념 포럼’에서 마련됐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방역지침이 엄수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포럼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 ‘KOFIH Tube’에서 실시간 중계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유발했다.

글_ 송준호



‘글로벌 보건안보’라는 시대적 과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K-방역이 전 세계에 화제를 뿌리고 있는 요즘, 보건의료계에서 유독 자주 입에 오르는 이름이 있다. 국제 보건 분야에서 헌신하며 ‘아시아의 슈바이처’, ‘백신의 황제’라는 별명으로 명성을 드높인 고(故) 이종욱 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다. 생전 그는 감염병 팬데믹 대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신종 감염병 발생 국가가 WHO에 즉시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국제보건협약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전략보건운영센터를 설립해 각국의 감염병 즉각 대응을 위한 비상 상황 시스템을

을 구축했다. 이 같은 감염병 대응 시스템과 함께 자신의 별명처럼 백신 보급을 통해 세운 업적은 이번 팬데믹을 거치며 세계 보건의료계에 새삼 회자되고 있다.

이런 그의 유지를 계승하고자 설립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개발의 현황을 공유하는 취지에서 이번 포럼을 주최했다. 서울 서소문 역사박물관 명례방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추무진 KOFIH 이사장**을 비롯해 현 대응 상황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이종욱 전 사무총장의 업적을 기리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개회사를 위해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추무진 이사장은 “코로나19는 이제 단일국가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인류 최고의 위기가 됐다”고 우려하면서도 “예방률이 90%가 넘는 백신 개발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며 백신의 실제 사용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추 이사장은 “코로나19 백신을 글로벌 공공재로 인식하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알찬 토론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지길 희망한다”라는 바람으로 개회사를 마쳤다.



코로나19 이후 국제협력, 어떻게 될 것인가

이날 포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이종욱 전 사무총장 재직 당시 WHO의 감염병 대응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그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제언이 이뤄졌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코로나19와 세계 경제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왜 지금 연대와 협력이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윤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빈곤층이 빠르게 양산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그 원인을 경제적 불평등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 불평등의 여파로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곳으로 미국을 지목했다. 자유시장 논리에 의존해온 미국 의료보건 시스템 아래에서 상대적 하층계급인 흑인들은 백인보다 사망하는 수치가 두세 배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윤 전 장관은 러스트 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확보한 트럼프가 당선 후 그 지지층을 의

식해 국제 리더십을 포기하고 고립의 길을 선택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입지는 좁아졌고 전 세계적인 재앙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반목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 전 장관은 미국 내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의 안정까지 달려 있는 지금의 분기점에서 이번 미국 대선 결과는 희망적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전제 조건은 조 바이든 당선자의 개혁 성공 여부다. 윤 전 장관은 51% 대 47%라는 투표 결과에서 나타나듯 극단적으로 분열돼 있는 미국의 민심을 어떻게 잘 추스르는가가 바이든의 과제라고 분석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와 더불어 서민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조강연은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기를 맞아 국제사회가 각자도생하기보다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하는 ‘이종욱 정신’이 필요하다는 역설로 마무리됐다.



이종욱 전 사무총장 WHO 재임 시절 감염병 대응 성과와 향후 우리의 대응 방향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중앙방역대책본부 부분부장)은 생전 이종욱 전 사무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WHO의 대응을 회고했다. 권 원장은 이 전 총장이 임기를 시작한 직후인 2003년 9월부터 타계 직전인 2006년 3월까지 WHO 본부에서 30개월 동안 파견 근무를 했다. 그는 이 전 총장 1주기에 맞춰 그의 말과 일화를 정리한 책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하라>를 펴내기도 했다.

권 원장은 “이 전 총장은 추진력, 신속성, 전문성, 조정 능력, 지도력을 갖춘 리더였다”고 설명하며 여러 예를 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각 회원국이 24시간 내에 WHO에 알리는 ‘국제보건규칙’ 정비다. 이 규칙은 감염병 발생 시 각국의 우수한 인력으로 드림팀을 꾸려 현장에 파견하는 제도다. 권 원장은 “환자가 300명 이내 일 때 역학 자료를 수집해 각국에 전파하고 입국을 막을지 판단해야 했는데, 이번에 WHO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또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WHO 관련 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상황을 통제하는 SHOC(전략보건운영센터·Strategic Health Operations Centre, 현재는 JW Center for SHO로 바뀌어 약칭 ‘JW 센터’가 됨)도 이 전 총장 재직 시 마련됐다는 사연도 전했다.

권 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각국이 각자도생하도록 놔두는 것은 국제기구의 역할이 아니라고 말했다. WHO 같은 기구가 주도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백신이 개발됐을 때 우선순위를 뒤서어

는 지역부터 접종을 할지 리더십을 갖고 조율해야 했다는 말이다. 현재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는 겨우 87개국만 참여를 확약한 상태. 이마저도 미국은 참여하지 않고 중국은 1%만 가져가겠다고 생색만 내고 있는 상황을 꼬집은 발언이었다.

마지막으로 권 원장은 백신 개발과 보급에 대한 계획을 밝히며 최대한 치명률을 낮춘 상태로 백신접종을 하게 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겨울은 완전히 달라질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백신 분배의 불평등 해소

이종구 글로벌보건안보대사는 현재 예방접종과 관련된 이슈들을 소개하며 앞으로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우선 그동안 논란이 돼온 '집단면역' 문제에 대해 “이것이 성공하려면 인구의 66%가 면역을 가져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정리했다. 이 대사는 “일부러 노출해서 집단면역을 하겠다는 생각은 인류사에서 처음”이라며 시도 시 취약계층 보호가 어려워져 결국 노인층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대량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단면역 자체가 정치도구화될 우려도 있다. 실제로 트럼프의 경우 선거 전략으로 봉쇄 조치를 빨리 풀고 집단면역을 사용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사는 “면역이 60~70%이면 집단면역이 이뤄지는데 실제로는 인구의 거의 80% 이상에게 접종한다고 생각하고 백신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등장한 이슈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자연적인 집단면역을 추구하자는 그레이트 배링턴 선언(Great Barrington Declaration)이다. 이를 지지하는 이들은 낮은 사망 위험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노령층 등 고위험군만 집중 보호하자고 주장한다. 이에 이 대사는 자연노출에 의한 항체 생성도 현재 지속성을 모르는 상태이고, 자연면역을 할 때 집단의 선택에 관한 정당성이나 윤리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공공재로서의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이 대사는 최신 정보나 과학적인 증거에 입각해서 이런 공공재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해서 접종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나리오를 정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사는 “우리 국민에게 필요

한 예방접종을 확보하고 접종이 다 끝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같은 개인의 행동 유지는 계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K-방역의 핵심인 경로 추적, 격리, 빠른 치료 역시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사는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국민 참여도 필요하고 경제와 방역의 균형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은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개발과 수입 현황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 발제했다. 성 단장은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백신을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백신은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굉장히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개발에 최소 10~15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신속한 개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는 아직 다 파악되지 않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빠른 개발이 어렵다. 다만 백신 개발 플랫폼 중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mRNA 백신, 벡터형 백신 등을 활용해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이 경우에도 바이러스 특성에 있어 안전성을 완전히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범정부 실무추진단을 조직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의 백신 실험은 K-방역의 출중한 효과로 인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임상실험을 하려면 해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백신의 우선 구매와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다. 백신이 공공재라는 인식을 통해 세계 각국이 감염병에 동등하게 대처하는 ‘세계시민’적인 의식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소위 코백스 매커니즘을 통해 우리나라도 지난 10월 초에 수백억 원에 해당하는 선금을 납부한 상태. 구매 후보로 예상되는 백신이 전세계에 다섯 종류 정도 있는데 어떤 백신이 가장 효과가 있을지는 모른다. 위험 분산을 위해 플랫폼이 다른 두세 가지 이상의 백신을 종류별로 습득하자는 것이 기본 정책이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급 회사가 구매한 정부에 면책 조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선택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 단장은 코로나19 이후의 백신 개발 전략은 매우 달라질 것으로 전



망한다.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 좀 더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DNA 백신, RNA 백신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다. 언젠가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등장할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하고자 하나의 백신으로 모든 변종에 대처하는 소위 '유니버설 백신'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성 단장은 향후 10~20년 동안 출현 가능한 다양한 질병을 미리 대비하자고 제안한다.



ODA 유상 분야 협력국 코로나19 지원 사례와 향후 방향

김태수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겸 경제협력본부장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 양상에 대해 발표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자금으로 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김 부행장은 개도국의 긴급 상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당시 특별한 예산지원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절차는 협력국 정부의 수요에 따라 차관 방식을 적용해 공급하는 대응체계에 따라 이뤄졌다. 협력국 정부와 국제개발은행의 네트워크를 통해 K-방역 의료기자재와 보건예산 등의 수요가 확인되면 상황에 따라 기자재 차관과 프로그램 차관이 적절하게 활용된다. 이후 국내 의료기자재 기업 현황과 공급 가능 물량을

파악해 KOFIH 등 보건 분야 무상 전문기관과 협력해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10월 말 현재 8개국 10개 사업에 3억9500만 달러가 승인 완료된 상태다. 몽골,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같이 의료기자재를 요청한 나라에는 신규 기자재 차관이 지원됐다. 반면 파라과이, 가나, 필리핀,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처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을 요청한 국가에는 프로그램 차관이 지원됐다.

김 부행장은 향후 EDCF가 보건의료 분야 지원 방식에서 다양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지원 수단을 다각화해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유·무상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의료보험·심사평가 제도와 감염병 대응 K-방역 제도 등 무상 정책자문을 연계하는 한편, 사업 초기부터 연계 패키지를 구성해 협력을 실천하겠다는 포부다. 세 번째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EDCF와 민자병원사업을 결합해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운영과 지원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김 부행장은 “최근 사업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금만으로는 개도국에서 요구하는 지원 수요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EDCF는 앞으로 유·무상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개발기구나 수출입은행에서 운영 중인 여러 금융 방식과 혼합하면서 대규모 사업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K**

KOFIH 라오스·탄자니아 사무소

새로운 시작, 이로운 세상을 열다

시작은 특별한 힘이 있다.
새로운 경험을 앞두고 설레기도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만남과 배움을 통해
성장하게 되는, 어쨌든 해피엔딩 스토리.
여기, KOFIH호(號)의 베테랑 선원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두 책임자의 이야기가 있다.

글_ 김보미

라오스 사무소 | 이해영 소장 “철저한 현지화로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KOFIH가 라오스에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씨앗을 뿌린 지 10년, 라오스의 토양에 단단히 뿌리내린 KOFIH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더 높은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다. 그 핵심인 ‘북동부지역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은 1차(2010~2015년)와 2차(2016~2021년)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2022년에는 기존 사업과 더불어 신규 사업이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라오스 북동부지역의 2개 도시, 후아판과 시영쿠앙을 중심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파일럿 활동을 추진하고 실제 정책에 적용해 전 국가 단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

이에 앞서 당장 내년에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도 있다. KOFIH는 ‘건강보험 심사청구체계 구축 및 정책관리 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청구체계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라오스에 맞는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라오스 보건부를 비롯한 많은 공여기관들과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강화 사업, 국립의과대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사업, 감염병 진단 및 검역체계 구축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새해에 동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11일 파견 후 2주간의 격리를 마치고 이제 막 근무를 시작한 이해영 라오스 사무소장은 그 준비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대학 신입생이던 2004년 우연히 몽골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 국제 개발 협력에 관심을 갖게 된 이 소장은 2006년 사회복지의 꿈을 안고 몽골 국립대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후부터 국제개발협력가의 길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2008년 KOFIH에 입사해 WHO 이종욱 공공보



라오스 사무소 이해영 소장(오른쪽에서 세번째).

건기념상을 비롯한 이종욱 기념사업과 홍보 업무를 겸임하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캄보디아 사무소에서 모자보건사업을 맡아 진행했다. 이후 이종욱펠로우십 담당, 전략개발 및 신규 사업 발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심의 대응 관련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거쳐 오늘의 라오스 사무소에 다다랐다. 지금은 앞으로 라오스 사무소를 어떻게 꾸려갈지 구상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앞으로 다수의 사업 구성은 어떻게 할지, 인력 운영과 역량 강화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KOFIH와 라오스 간 협력은 어떻게 다질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소회를 밝힌 이 소장은 파견 초기인 현재는 라오스 보건부와 다른 공여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산화의 정도 등 제반 여건이 달라서 협력국이 일하는 속도와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점은 어느 현장에서나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인데, 앞으로 이를 더 철저한 현지화로 극복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위해 일하기보다는 과정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이해하고, 또 차근차근히 하나씩 협력해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장은 자기 자신부터 현지화하고자 한다. 라오스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배워 협력국 사람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그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라오스에서 또다시 KOFIH가 피워낼 열매가 궁금해진다.

탄자니아 사무소 | 하승래 소장 “긍정의 힘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안정적인 정치 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잠재력을 조용히 깨워나가는 나라, 탄자니아. 그곳에선 평화롭지만 치열한 공조가 펼쳐지고 있다. KOFIH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유기적인 공조로 2017년 11월 개원한 600병상 규모의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이 바로 그 현장.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 협력은 EDCF가 맡고, 사업 발굴 지원과 병원 운영관리 및 역량 강화 등 기술 협력은 KOFIH가 맡아 탄자니아 보건의료 인프라를 끌어올리는 국립병원의 기틀을 다져왔다. 빛나는 공조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병원 측의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 2023년까지 2차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탄자니아 사무소의 책임자로 새롭게 부임한 하승래 소장 역시 탄자니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공조의 힘을 활용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자신을 비롯해 부소장, 2명의 현지 직원이 하나가 되어 손발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하고, 외부적으로는 주기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현지 사업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기 모니터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해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탄자니아 도도마주 필수응급산과 및 신생아 의료서비스 역량 강화사업 등 신규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라 더욱 현지와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025년까지 이어갈 도도마주 필수응급산과 및 신생아 의료서비스 역량 강화사업은 통합응급산과 서비스센터 건축, 기초 응급산과 및 포괄적 응급산과 교육, 감염병 대응 지원 등 성공적인 경험 전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3) 달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프와니주 모자보건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의료기기 기술인력 교육사업과 협력국 의료기기 운영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철저한 안전



탄자니아 사무소 하승래 소장(왼쪽에서 세번째).

수칙 이행 아래 최선의 방향으로 진행돼 목표를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

현장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어려움을 언제나 긍정의 힘으로 극복해왔다는 하 소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힘든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KOFIH와의 인연도 긍정적인 생각에서 시작됐다. 목표와 열정, 끈기를 가지고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보건의료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거치다보니 어느새 KOFIH에 몸담게 됐다는 것.

긍정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을 재방문했을 때 그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우리 KOFIH의 지원으로 신축 및 개·보수한 시설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현지 주민의 따뜻한 미소를 보았을 때와 현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이 이뤄졌을 때 특히 기쁨을 느낍니다.”

탄자니아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사무소 직원들의 행복한 사업 수행을 위해 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현재 하 소장의 꿈이자 앞으로 그가 그려나갈 미래다. **㊦**

모두가 건강한 미래를 위한 2020 KOFIH의 도전과 열정



‘북한의료발전 남북 및 협력방안 국제심포지엄’ 국내외 전문가 80여 명 참석해 성황

지난 11월 19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공동 주최로 ‘북한의료발전 남북 및 협력방안 국제심포지엄’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 파크볼룸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으며, 북한 의료체계에 관심 있는 기관 및 국내외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2018년 베트남 도이모이 의료 시스템 개혁 모델 사례, 2019년 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이해 및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 세 번째 시리즈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에서 북한 주민의 안전과 건강 향상을 위한 남북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질서와 남·북한 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남·북한의 코로나19 위기와 대응’(이종구 서울대 교수, 차지호 영국 맨체스터대 교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오후 세션에서는 라오스와 베트남 보건 분야 고위직 인사들(푸퐁 무앙 팍 라오스 보건부 차관, 당 팡 탄 베트남 질병관리본부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북한과 유사한 체제국의 코로나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서 한국의 ‘K-방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에 대해 공단 변진욱 박사의 발표가 이어졌고, 약 20명의 보건의료·통일의학·북한학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추무진 KOFIH 이사장은 “215개국 12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 공동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인류 최고의 위기가 됐다”며 “특히 남과 북은 함께 대응해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공동 대응체로 국제협력방안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래를 향한 '2022년 제안사업 선정 회의' 개최

'2022년 제안사업 선정 회의'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8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2022년도 제안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부서의 설명 후 제안 사업을 건별로 심의하고 의결했다. 회의에는 선정위원과 제안사업 담당자 등 총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선정회의에서는 총 17개 사업이 제안사업 후보로 올라왔고, 이 중 12개 사업이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됐다.



그중 '에티오피아 의료기기 운영관리 거버넌스 강화사업'과 관련해 김영서 전문위원은 "통합적으로 의료기기를 관리 및 지도 감독한다면 1차 사업으로 축적된 에티오피아 내 의료기기 관리 운영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KOFIH 천주환 글로벌개발협력본부장은 '라오스 보편적 건강보장체계 강화사업'에 대해 "2018년 아타프 지역의 댐 사고 이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연계하는 아타프 지역사업과 KOFIH가 수행 중인 기존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을 합쳐 총 4개 도를 총괄하는 사업이며, 타당성 조사는 완료했으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기에 2022년도 아타프 지역사업을 포함해 사업을 계획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정된 사업은 △라오스 보편적 건강보장체계 강화사업 △캄보디아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의료급여심사원 기능 강화사업 △캄보디아 감염병 및 코로나19 대응 강화사업 등 총 12개 사업이다.

협업의 첫걸음, 제1차 KOFIH-EDCF 정례협의회 열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함께하는 '제1차 KOFIH-EDCF 정례협의회'가 지난 8월 6일 KOFIH 8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첫 정례협의회는 KOFIH와 EDCF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개발협력 보건의료 분야 사업에 있어서의 전략적 연계 확대 및 협력 증진을 위해 개최됐다. 지난 2월 8일 KOFIH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 2회의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첫 정례협의회의 의제는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지원 △유·무상 연계 및 협업 사업 발굴 논의 △현지 사무소 협력방안 등으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지원'에 있어서는 KOFIH가 진단 키트 지원, 감염병 정책 컨설팅 및 보건의료 전문인력 지원을 진행 중이며, EDCF는 국제 금융기관과의 협조 용자 및 신규 기자재 차관 승인을 통해 개도국의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내년도 사업 추진 시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인력, 의료기기 시설 등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신규 융합사업 추진 및 현지 사무소 협력방안을 실무자 간에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제12회 이종욱공공보건기념상 시상 호아오 아프리지오 구에라 데 알메이다 박사(브라질), 겸상 적혈구병 컨소시엄(탄자니아) 선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브라질의 호아오 아프리지오 구에라 데 알메이다 박사와 탄자니아의 겸상 적혈구병 컨소시엄에 제12회 이종욱공공보건기념상을 시상했다. 제73회 세계보건총회 기간 중이던 11월 13일 영상으로 개최된 제12회 이종욱공공보건기념상 시상식에서 추무진 KOFIH 이사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알메이다 박사는 모유은행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고 브라질 전역에 모유은행을 시행하는 법안을 도출했으며, 모유은행 운영시스템을 재정비했다. 나아가 브라질 모유은행 네트워크 발족에서부터 글로벌 네트워크로 규모를 확대시키기까지 선도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2100만 명의 여성이 자발적으로 모유를 기증하고 210만여 명의 영유아가 혜택을 받았다. 회원들의 연대와 자발성을 바탕으로, 수백만 영유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영유아 사망률 감소와 모성 건강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겸상 적혈구병 환자 출산 건수가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탄자니아는 겸상 적혈구병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아프리카 3개국 탄자니아 겸상 적혈구병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다. 컨소시엄을 통해 아프리카 최초 겸상 적혈구병 유전 연구 실시, 신생아 스크리닝 도입, 단일 연구소 보건사업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5000여 명의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겸상 적혈구병 컨소시엄은 해당 기구를 아프리카 15개국 및 국제적 수준의 네트워크로 확대할 예정이다. 탄자니아 겸상 적혈구병 컨소시엄은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보건과 가정보건 분야에서 큰 발전을 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추무진 이사장은 “올해 수상자들이 각자의 성과를 자국을 넘어서 지역적·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 더욱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하고 나아가 보건 형평성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이번 수상자들이 거둔 성과가 다른 국가, 다른 지역에까지 널리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수상을 축하했다.

한편 이종욱공공보건기념상은 WHO 명의 11개 상 중 하나로, 공공보건 분야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매년 후보자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제보건의료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며 점차 권위가 높아지고 있다.

‘제2회 재단 주관 외국인 근로자 이동진료’ 지원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2회 재단 주관 외국인 근로자 이동진료’가 11월 8일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내 거주 3개국(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들은 내과·정형외과·치과·한방과·외과·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 총 8개 과목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번 진료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을 비롯해 (사)사랑담는사람들,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건강사회운동본부가 주최했으며, 진료팀 14명(의사 9명, 약사 1명, 치위생사 2명, 방사선사 2명)과 진료 지원 인력 38명이 힘을 합쳤다.

KOFIH는 지원 차량 3대를 비롯해 혈압측정기, 골밀도측정기, 처방의약품 129품목, 현장 봉사자 식사 등을 지원했다. 이날 외국인 근로자 52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전체 119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진료를 받은 한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평일에 일을 해야 해서 병원에 갈 수 없다. 병원 문도 빨리 닫아 약만 먹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장 대표들이 아픈 직원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아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앞으로 주말 진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대부고 건강공모전... <이종욱 평전> 서평이 금상 수상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하 이대부고)에서 열린 ‘2020 건강공모전’에서 <이종욱 평전>을 주제로 한 서평이 금상을 수상했다. 수상자인 2학년 신윤아 학생(사진)은 “평전을 읽으면서 이종욱 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됐을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종욱 사무총장님의 삶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대부고 건강공모전은 매년 독후감을 비롯해 UC나 시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응모를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보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올해 다양한 참여가 있었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다.

이대부고 권인숙 보건교사는 “건강 증진을 주제로 약 8년째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올해는 특히 보건과 건강에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평소 이종욱 사무총장님과 국제보건에 관심을 둔 학생들이 많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얀마 베데스다 클리닉 장철호 원장, 기꺼이 고통에 동참하다



곤궁한 이웃에게 가장 절실한 위로는 곁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그 가치를 고스란히 삶에 새겨온 사람. 제7회 이태석 봉사상 수상자이자 미얀마에서 무료 진료 활동을 펼쳐온 베데스다 클리닉 장철호 원장의 이야기다. 서울대 의대 졸업 후 인제대 상계백병원 교수와 개원의를 거쳐 2006년 중국으로, 다시 2013년 미얀마로 떠났던 그의 여정을 담았다.

글_ 김보미

고통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삶을 따라

2002년 아프가니스탄 난민촌에서 엄마 품에 안겨 우는 아이를 만난 것이 시작이었다. 아파서가 아니라 배고파 우는 아이에게 소아과 의사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진정한 봉사의 삶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죠. 마더 테레사가 위대한 것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함께 있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길든 짧은 인생의 한 기간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کمپ션(Compassion)’의 삶. 그 가치 있는 삶을 마주하게 된 장철호 원장은 해외 의료봉사의 길을 걸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늦둥이 외아들로서 80대의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소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는 너무나 강렬했다.

그렇게 2006년, 장 원장은 중국 단둥에 닿았다. 북한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에 의해 파송돼 단둥복지병원에 근무하며 탈북자나 단둥을 방문하는 북한 사람들, 그리고 그곳의 도시 빈민과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와 구제사업을 펼쳤다. 처음에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 외딴 마을에 사는 가난한 중국인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진료를 봤다. “중국은 외국인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국인이 현지인 마을에 들어가거나 현지인과 접촉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금지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한 가구 한 가구,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다보니 입소문이 났죠.”

그렇게 발로 뚫은 지 2년, 단둥시에서 도시 빈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마침내 시의 협조 하에 공식적으로 중국인 진료를 시작하게 된 것. 농촌마을에 있는 정부 병원에서 진료를 했을 뿐 아니라, 도시 빈민의 집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또 환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와 건강 검진과 치료까지 받게 했다.



미얀마 주민들과 함께한 장철호 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

미얀마 구순구개열 무료 수술 프로젝트

5년여의 봉사를 마치고 2011년 한국에 들어온 장 원장은 안식년을 보내는 와중에도 다음 봉사를 구상하고 있었다. 중국보다 더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가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2012년 말경 미얀마에서 구순구개열 무료 수술 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국제구호단체(지아이씨)와 맞닿아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자격으로 미얀마에 가게 됐다. 한국에서 수술봉사팀(성형외과 전문의 2~3명, 마취과 전문의 1~2명, 간호사 2~3명 등)이 오기 전에 미얀마 정부로부터 수술 허가를 받고, 환자를 모집하고, 수술할 병원을 섭외하는 것이 그의 임무. 또

한 환자들이 수술받기에 적합한지 사전 진찰 및 검사를 하고 수술 후 처치와 팔로업(Follow-Up)도 하면서 프로젝트 전반을 진행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은 물론, 교통비가 없어 양곤까지 오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 만달레이, 네피도, 힌따다 등의 중소도시에서도 수술을 진행해 지금까지 17차에 걸쳐 4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무료 수술을 해주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미얀마 정부로부터 수술 허가를 받아내는 것. 다행히 초기에는 현지 까렌침례교병원의 협력으로 수월하게 허가를 받아 환자를 모집하고 수술실도 빌려 쓸 수 있었다. 그 후에는 군부정당 고위직 인사의 도움으로 중소도시 힌따다의 정부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2018년부터는 아예 수술 허가를 내주지 않아 현재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베데스다 클리닉의 수술 병동이 완공되면 이곳에서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이라는 장 원장.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한 아이와의 귀한 인연도 들려주었다.

구순열과 구개열에 영양실조까지 걸린 생후 8개월의 남자 아기.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가난 탓에 누나 둘은 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엄마는 세 아이를 키우면서 공장에서 일해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일단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야 수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달 분유를 사서 갖다 주고, 작은 누나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후원해주었다. 다행히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 3년 전 무사히 구순열 수술을 받았다.

이 아이의 이야기와 함께 구순구개열 무료 수술 프로젝트가 2015년 CTS 기독교TV에 소개됐는데, 이 방송을 본 시청자 두 사람이 각각 5000만원씩 기부했고 그 기부금을 바탕으로 지금의 미얀마 베데스다 클리닉이 건립됐다. 구순구개열 무료 수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늘 거점이 되는 병원이 있어야겠다는 장 원장의 생각이 두 사람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후원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그는 “그 아이를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누구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미얀마는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으로 정부 병원의 진료비가 무료지만 시설이 열악하고 전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서민의 경우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베데스다 클리닉이 건립된 흘라잉따야타운십은

양곤시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공단 지역으로 양곤시 33개 타운십 중 가장 가난한 서민 40만 명이 살고 있는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정부 병원은 단 하나, 사립병원도 한 곳으로 그 외에는 일반의가 진료하는 영세한 클리닉이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약국에서 값싼 약을 사먹거나 미얀마 전통의학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베데스다 클리닉에선 무료로 내과·소아과·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인공신장실(혈액투석)까지 갖춰 하루 평균 70~80명의 환자가 다닌다. 내년 초 수술 병동까지 완공되면 작지만 온전한 종합 병원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베데스다 구순구개열 전문 수술센터를 만들어 현지 의사들에게 관련 수술 교육과 훈련을 하는 것이 장 원장의 꿈이다.



2015년 CTS기독교TV에 방영된 구순구개열 무료 수술 프로젝트 관련 프로그램.

이웃의 삶을 보듬는 길 위에는 그의 영원한 동반자인 한혜경 씨도 함께 서 있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언어치료사로서 2000년부터 해외 의료봉사를 다니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늘 함께해온 그녀는 현재 언어통역 비정부기구(NGO)인 BBB코리아와 한국어학당을 설립해 미얀마 청년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한마음을 지닌 두 사람은 기꺼이 사람과 사람, 한국과 미얀마를 잇는 징검다리가 돼주었다.

또한 장 원장은 현지에서 수술이 어려운 중증 화상, 선천성 심장병, 항문 폐쇄 환자 등을 한국으로 초청해 무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렇게 한국을 다녀간 환자가 모두 11명. 특히 선천성 심장병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조만간 목숨을 잃게 되고 시기를 놓치면 수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빠른 수술을 요한다. 무료 수술이 가능한 한국의 병원을 찾아 그는 백방으로 힘쓸 수밖에 없다. 1년간의 기다림 끝에 심장병 수술을 받게 된 아이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는 “수술을 집도한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한 생명을 구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고 회고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평생 한 번도 의사를 만나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장 원장은 15년을 한마음으로 한길을 달려왔지만 그는 ‘아직도’ 꿈을 꾸고 ‘여전히’ 그곳에 있다. **K**

코로나19에 독감, 노로바이러스, RSV까지...

치료제 없는 겨울철 감염병도 예방법 잘 지키면 OK!

겨울철 기온이 떨어지면
코로나19와 함께 독감이
유행할 위험이 있다.
이외에도 겨울철에 특히
유행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
많은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손 씻기와 마스크 등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글_ 이정아 동아사이언스 기자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 코로나19 3차 유행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가 독감과 동시에 유행하면서 위중한 환자와 사망자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국내에서는 최근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으로 인해 의료 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것에 대비해 서울시와 경기 광명·고양·부천시, 강원 원주시 등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겨울철에는 독감뿐 아니라 노로바이러스 장염이나 A형간염 등 여러 감염질환이 유행하기 쉽다. 기온이 떨어지는 데다 실내외 기온 차가 커지면서 면역력 또한 떨어지기 때문이다.

겨울철의 대표 불청객, 독감

독감은 겨울마다 찾아오는 대표적인 감염질환이다. 이름 때문에 '독한 감기'쯤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코로나바이러스와 리노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기와 달리, 독감의 원인은 인플루엔자바이러스다. 세계에서 매년 30만~65만 명이 독감으로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다행히 독감에 대해서는 치료제와 백신(예방접종)이 개발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그 해에 유행할 것으로 보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발표한다. 그러면 세계 제약회사들은 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백신을 개발해 내놓는다. 매년 새로운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다.

독감과 코로나19는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이지만, 고열이나 기침, 재채기, 인후통처럼 증상이 꽤 비슷하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자라도 이를 독감으로 오인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지 않으면 코

로나19에 걸렸는지 모른 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릴 위험이 있다. 문제는 이 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됐을 때다. 영국 공중보건국 연구팀이 지난 1월 20일~4월 24일 영국 내에서 독감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환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두 가지 감염질환에 모두 걸린 환자가 사망할 확률은 무감염자의 약 6배, 코로나19만 걸린 환자의 약 2.3배에 이를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과 코로나19 둘 다 감염된 환자 가운데 약 43%가 사망했다.

연구팀은 하나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거나, 두 바이러스로 인해 폐렴 등 합병증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으로 봤다. 또한 노인이나 기저질환자 등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고위험군은 독감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노로바이러스 장염, RSV 등도 겨울철에 많이 발생

겨울철에는 독감 외에 식중독 발생 위험도 높다. 여름철에 상한 음식으로 발생하는 세균성 식중독과 달리 겨울에는 주로 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이 빈번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최근 5년간 겨울철 식중독 발생 통계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매년 평균 1115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 장염을 앓았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11월부터 봄까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C 이하의 낮은 곳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생존력이 강하다. 바이러스 입자 10개만으로도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전파력도 세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었을 때, 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했을 때 감염된다. 감염자가 만진 문손잡이를 만지거나 같은 화장실을 이용해도 감염될 수 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후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구토, 설사, 탈수, 복통, 두통 등이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에는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이 아직 없다.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되며, 물을 많이 마시거나 수액을 맞아 탈수 현상을 줄인다. 다행히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쉽게 예방할 수 있다.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익히지 않은 식재료를 만진 후에는 비누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씻고, 어패류를 요리할 때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 85°C 이상 고열에서 완전히 익혀야 한다. 어패류를 조리할 칼이나 도마를 끓는 물에서 열탕 소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하수나 물탱크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됐을 때는 장염이 유행할 위험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수질 검



사를 해야 한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장염도 겨울철에 특히 잘 발생한다. 영유아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고열과 구토, 심한 설사 증상을 보인다. 노로바이러스와 달리 로타바이러스에는 백신이 나와 있다.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국내에서는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실,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이 집단발생하기도 한다. 이 질환은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거나 오염된 손으로 물건을 만졌을 때 다른 사람이 이를 만지거나 콧속 점막 등을 통해 전염된다. 성인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증상이 약하게 지나간다. 하지만 12개월 이하 신생아가 감염되면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아직까지 RSV 감염증에 대한 완벽한 백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행 시기에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거나 손을 잘 씻는 등 예방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겨울철에 유행하는 감염질환이 많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감염병이라도 예방법을 잘 지킨다면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오히려 감기 환자가 크게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 1분기의 료기관의 질환별 방문 날짜 수를 분석한 결과 예년보다 기관지염이나 부비동염, 비인두염 등을 앓는 감기 환자가 3분의 1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대다수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주 손을 씻으면서 감기 역시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감염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제 개발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현실적이라는 뜻이다. **K**

2020년 <KOFIH Letter> 가을호를 읽고 많은 분들이 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좋은 말씀, 소중한 의견을 기억하며 더 나은 <KOFIH Letter>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KOFIH Letter> 가을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 강병국(서울 강동구)
- 강수지(인천 연수구)
- 김은정(대전 대덕구)
- 김태완(서울 서대문구)
- 우도형(서울 영등포구)
- 이귀숙(부산 해운대구)
- 이선영(인천 부평구)
- 이춘임(경기 포천시)
- 정명진(서울 강남구)
- 최남이(대구 달서구)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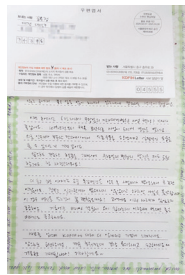
원고 접수

<KOFIH Letter>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독자엽서에 자유롭게 써주세요.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9 아시아미디어타워 705, 706호
(주)코리아프린테크 <KOFIH Letter> 사보 담당자 앞

함께 만드는 <KOFIH Letter>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김은정(대전 대덕구)

가을호에선 '글로벌 특파원' 코너인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 현장' 기사가 좋았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해온 KOFIH의 보건의료 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네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탄자니아의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앞으로도 KOFIH의 꾸준한 활동을 기대하며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의 발전을 저도 응원할게요.

강수지(인천 연수구)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 일상의 여러 부분이 달라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그중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의 방식과 개념도 새로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와 관련한 정보가 담긴 '열정 36.5℃' 코너의 '감염병, 불확실성 시대의 보건의료 ODA가 나아갈 길 모색' 기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강병국(서울 강동구)

전쟁터와 오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의료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자살폭탄테러와 탈레반의 미사일 공격이 끊이지 않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글로벌케어 박세업 본부장과 그 가족들의 희생정신에 감동받았습니다. 참된 의료인의 모습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국 의료인들의 삶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질길 희망합니다.

최남이(대구 달서구)

'글로벌 리포트' 코너인 'KOFIH와 8개 ODA 협력국이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체계' 기사가 무척 유익했습니다. 이 기사 덕분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1차 의료 강화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면서 협력국의 병원 건립부터 컨설팅, 의료기기 제공과 교육까지 유·무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KOFIH의 활약상을 엿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춘임(경기 포천시)

'KOFIH 인사이트' 코너의 'KOFIH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롤링페이퍼' 기사를 가슴 뿌듯하게 읽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시름에 잠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KOFIH와 협력하며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접하니 참으로 믿음직스럽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KOFIH의 사업들이 단절 없이 시행돼 모두가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마스크 착용!

나와 가족을 위한 '한 장'의 위력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착용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 ✓ 수술용 마스크
 -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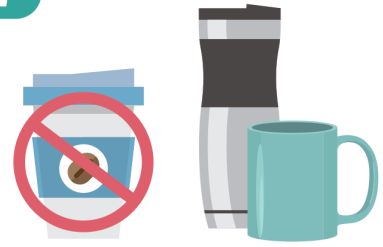
-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플라스틱 다이어트, 함께해요



1



텀블러(개인컵),
다회용 컵 사용 생활화하기

2



장 볼 때는
장바구니(에코백) 사용하기

3



음식 포장 시 **다회용기에**
담아가기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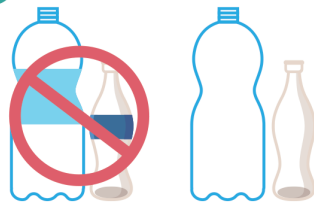
음식 배달 주문 시
안 쓰는 플라스틱 거절하기

5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줄이기

6



음료 구입 시
무라벨 제품 우선 구매하기

7



온라인 상품 주문은
모아서 한꺼번에 하기

8



과도하게 포장된
제품 소비 줄이기

9



포장 안 한 상품 등
구매하기

10



세탁 비닐 등
불필요한 비닐 사용 줄이기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 자원순환 실천플랫폼에도 함께 동참해주세요!



스마트한 절전 요령!

1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대비
약 30~40%
에너지 절감

2 내복 등 온맵시 착용하기



겨울철 방한용품을 착용하면 체온상승 효과

3 스마트플러그로 대기전력 차단하기

소비전력의 11%를 차지하는
대기전력 스마트 플러그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



4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C 유지하기



5 태양광, 태양열 등을 활용한 난방, 온수전력 대체



6 문닫고 난방 영입하기



문 열 때보다
약 2배
전력 절감



우 편 엽 서



WINTER
2020
Vol.55

보내는 사람

□ □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 시 체크 표시)

- 목적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소식지 독자엽서 상품 배송
-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뒷면 재단 소식 구독란 체크 시 메일 주소 포함)
- 보유 및 이용기간 : 독자엽서 상품 배송 후 즉시 파기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독자엽서 당첨자 상품 배송이 제한됩니다.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9
아시아미디어타워 705, 706호 (주)코리아프린테크

KOFIH Letter 사보 담당자 앞

0 4 5 5 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Letter

지 린 드 시
✂

- KOFIH Letter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 이번 호에서 유익하거나 재미있었던 기사는 무엇인가요?
- KOFIH Letter에서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 KOFIH Letter와 함께 재단 관련 소식을 받아보길 원하는 분은 아래 내용에 표시해주세요.
□ 소식지 구독을 신청합니다. □ 포럼, 워크숍 및 행사 등 재단 관련 소식을 받아보겠습니다.
- KOFIH Letter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써주세요.



인도주의를 향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의지는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사업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사할린 거주 한인동포 1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현지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그중 하나입니다. 국적, 성별,
계층을 초월해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KOFIH의
열정은 더 건강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희망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